

한의학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손영규

소망 이비인후과 원장, 경희대 의학 박사

서론

우리 나라에 西洋醫學이 도래된 지가 100년이 조금 지났다. 서양의학은 18세기 이래로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는데, 그 特徵은 論理的 思考에 의한 分析的 實驗과 統計에 의한 確率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事實性, 그리고 解剖學을 中心으로 한 攻擊的인 實驗 精神에 의한 正確性和 事實性을 根本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서양의학 을 運用함에 있어서, 合理的인 이해가 가능하므로 강력한 說得力을 지닌다는 특징 이 있다. 더욱이 서양의학은 실험에 의한 證明을 추구함으로써 보편 타당한 客觀性 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그 應用이 보다 容易하며, 그 정보를 나누고 評價하는 데도 客觀的인 기준을 세우기가 쉽다.1)

1) 1) 전세일, "동서의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서울: 대한의사협회지, 1997년 3월호), pp. 276-282

그러므로 서양의학의 특징을 지적한다면 한마디로 '科學的이고 現代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서양의학은 眞理이다'라는 默示的 認定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욱이 서양의학은 西洋 改新敎 의료선교사들에 의해 도래되어진 관계로, 그리스도인은 웅당 '西洋醫學'하면 '基督敎'를 연상한다. 그러므로 '서양의학'은 '眞理의 醫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의학'으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와는 對照的으로 한의학이 우리 나라에서 활용된 것은 우리 나라의 역사와 같이하므로 이는 반만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의학은 東洋哲學을 바탕으로 한 形而上學的인 사고에 그 출발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보다 기술 의존적인 서양의학에 비해 한의학은 보다 人文主義的이다. 여기서 의사는 지도 교육하는 위치에 있으며 환자는 행위자가 된다. 그러므로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한의학은 어떠한 '병(病)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 병과 有關된 身體的·精神的인 總體的 洞察을 중시하므로 '어떻게 병을 치료할 것인가?'에 보다는 '어떻게 건강을 이룰 수 있는가?'하는 것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한의학은 '배움'에서 얻어지는 지식의 습득(習得)에서 보다는 '깨달음'에서 느끼는 '직감(直感)을 중요시하며,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主觀的)이다. 그러므로 서양의학에서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한의학에서는 '어떤 의사를 만나는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의학은 서양의학과 비교할 때 해부학적 분석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총체적인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강조하기에 적당한(中庸) 역할을 추구한다.²⁾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의학은 전근대적(前近代的)인 '고루(固壘)한 의학'이요, 실험·분석·증명하기 힘든 '비과학적(非科學的) 의학'이며, '미신(迷信)적인 의학'이라고 매도되기도 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한의학을 道敎나 儒敎 또는 佛敎에 가까운 哲學的 思念에 속한 '도사(道士)들의 의학'으로 간주하여, 반 기독교적(反基督敎的)인 '불신앙(不信仰)의 의학'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본 논문은 한의학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과연 올바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한 한 작은 연구로서, 한의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한의학 기초이론(基

2) Ibid.

礎理論)과 그 형성 배경(形成背景)을 살펴보고, 또한 이와 관련된 성서적(聖書的)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의 기초이론을 최초로 그리고 완전하게 담고있는 「황제내경(黃帝內經)」에 대한 성서적인 입장에서의 이해가 요구된다. 한의학의 최고 원전(最古原典)인 「황제내경」이 기원(起源)한 현장(現場)과 그 내용을 살펴 성서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한의학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과연 한의학은 하나님의 선물인가 아닌가?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그 배경의인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인간 수명의 변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답고 건강한 세계였다.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온전한 전인적(全人的)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永生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 인류사상(人類史上) 첫 환자가 된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귀의 동산에서 분리되어, 그 육신도 병들고 늙어 실제로 9백30세를 영위하고 죽어갔다(창5:5).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의 경우에도, 그의 9대손(代孫)인 노아에 이르기까지 평균 9백세를 살고 그 육신들이 죽어갔다. 그러나 평균 9백세의 수명은 영원불멸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밤의 한 경점(更點) 같고(시90:4), 하루살이 같겠지만(벧후3:8),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대단한 장수(長壽)가 아닐 수 없다.³⁾ 아무튼 인간들은 그들의 죄 값으로 무한(無限)에서 유한(有限)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후, 인간의 수명에 또 다시 변화가 일어났다. 노아 시대에 인간들의 죄악이 극도에 달하게 되자(창6:11-13), 하나님의 진노(震怒)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靈)이 인간과 함께 하시지 않게 되므로, 인간의 수명에도 변화가 생겨 그 평균 한계수명이 120세가 될 것임을 예고하셨다(창 6:3).⁴⁾

“耶和華說人既屬乎血氣，我的靈就不永遠住在他裏面，然而他的日子還可到一百

3) 손영규, 「기독교 세계관과 치유신학, 석사학위논문(서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1996), p. 68.

4) Ibid., p. 70.

二十年(創世記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靈)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됴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 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창6:3).”

그리고 하나님은 대홍수로써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오직 노아의 여덟 식구만 지상에 존재하게 하셨다(창7:21-23).

‘노아의 홍수’로 많은 것이 변했다. 하늘 위의 물들이 쏟아져 내려 대기층의 두꺼운 수증기층이 흩어져 지구의 溫室效果는 사라졌으며, 우주의 有害한 放射線과 電磁波들은 여과되지 않고 지구로 쏟아지게 되었다.⁵⁾ 지하의 깊은 샘들은 터져 솟아 올랐으며, 화산 活動에 의한 대 지각 변동으로 산은 솟고, 골은 깊어졌으며, 바다가 땅을 덮었다. 지구의 중심 축은 이때에 기울어져 춘하추동의 사계(四季)가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창8:22).⁶⁾ 환경의 대변화가 초래되었던 것이다(창7:11-24; 시 104:6-8).⁷⁾

또한 대홍수 이후 식생활의 변화로 肉食이 명시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약육강식의 살벌한 먹이사슬이 시작되었다(창9:1-5). 飲酒의 습관이 생겨났으며(창9:20), 이에 따라 집안 식구들 사이에 反目과 저주가 생겨났다(창9:21-25). 또한 早婚하는 관습이 생겨나 세대간의 격차가 홍수 이전에는 100여 세이던 것이, 홍수 이후로는 30여 세로 짧아져, 조숙(早熟)·조로(早老)·조사(早死)의 양상들이 나타났다(창11).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인간의 수명은 점차 段階的으로 줄어들어, 노아 950세, 셈 600세, 셀라 433세, 벨렉 239세, 아브라함 175세, 야곱 147세 그리고 마침내는 모세 120세로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평균 한계수명

5) 헨리 모리스, 「현대과학의 성서적 기초」, 이현모 역(서울: 요단출판사, 1992), pp. 332-333

6) 古 옛, 고

땅의 축이 바로 세워져 있었을 때가 ‘옛날(고대)’이었다. 즉 노아 홍수 이전 지구 축이 땅 위에 바로 세워져 있을 때를 뜻한다. 그러나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대화산 활동과 지각변동으로 지구 축은 23.5° 기울어졌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사계절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창7:11,8:22)

+ + □ = 古
 땅(지구)의 축 땅(지구) 옛, 고

7) 손영규, op cit, p. 81.

(창 6:3)으로 점차 감소되었다.

2 인류의 분산

한편 노아의 후손들은 대홍수 심판이 있은 후, 세월이 지남에 따라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對敵)할 목적으로 하늘까지 닿을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였다(창11:4).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계획을 시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다시는 이러한 악한 음모를 꾸미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混雜)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땅에 흠으셨다(창11:6-8). 그리하여 그들은 어느 정도 뜻이 통하는 가족 단위로 무리를 이루어 새로운 거처로 흠어지게 되었다. 즉, 인류는 그 어족(語族)에 따라 사방(四方)으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흠어지게 되었던 것이다(창10:5,20,31;11:9).

한편 주전(主前) 2,500년경의 바벨탑 사건 후, 동방(東方)으로 이동해 온 사람들의 일부는 황하(黃河) 유역에 정착하여 한족(漢族)의 조상이 되었으며, 일부는 황하 하류 및 산둥지역(山東地域)과 남만주(南滿洲) 일대와 한반도(韓半島)까지 이르렀던 동이족(東夷族)으로 우리 한민족(韓民族)의 조상이 되었다.

중국 한족과 동이 족의 발생 기원은 대략 주전 2,500년경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놀랍게도 이 시기는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때와 일치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족보를 추적해 보면, 바벨탑 사건은 주전 약 2,200년경에 일어났던 것임을 알 수 있다.

3. 한민족(漢, 韓民族)의 동진(東進)의 증거들

중국 한족(漢族)과 동이족(東夷族·韓族)이 바벨탑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근처에서 중국 대륙으로 이주해 온 여러 증거들이 있다.⁸⁾ 첫째, 고대 중국인들의 예술이나 학문, 통치 구조 등을 살펴보면 후기 바벨론이나 앗시리아의 문명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한다.

둘째, 중국에서 구전되어 오는 전설(傳說)이나 설화(說話) 속에서 그 증거들을 찾

8) Ibid., pp. 29-30.

아 볼 수 있다. 주전 2,500년 경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황하 유역으로 이주해 온 한족(漢族)과 동이 족들은 고대의 조상에게서 구전(口傳)으로 내려 받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부터의 역사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음을 받은 당사자인 아담은 므두셀라 때까지 살아 있었고, 므두셀라는 셈의 때까지 살아 있었으며, 셈은 바벨탑 사건 후에도 40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셈까지는 10대(十代)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3대(三代) 족장(族長)들이 세 대 교체한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창5:3-32,10:25,10:10-16 참조). 이에 대한 증거로 대홍수에 관한 중국설화에 그 홍수를 극복한 사람의 이름이 ‘누와’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는 ‘노아’와 비슷한 발음으로 분명히 노아의 대홍수 사건들이 후손들에게 구전되어 온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⁹⁾

마지막으로, 중국의 고대 종교의식 속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숭배 사상’의 흔적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4. 중국 고대 종교의식 속에 나타난 ‘여호와 숭배 사상’

공자나 노자, 석가의 가르침이 있기 전인 주전 500년대 이전의 ‘종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전해 내려오는 기록으로써 우리는 고대 종교의식 속에 나타난 신관(神觀)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대륙에 인류가 출현한 이래로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하늘의 최고 통치자’로서의 ‘상제(上帝)’를 신봉했으며, 이는 때때로 ‘하늘’을 의미하는 ‘천(天)이나 ‘영(靈)을 뜻하는 ‘신(神)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고대의 중국민족이 미신과 우상 숭배보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들을 볼 수 있다. 당시의 고대 중국인들은 ‘하나님’을 ‘하늘 위(上)에 계신 통치자(上帝)’라고 불렀다. 그밖에는 어떤 형태의 신화나 우상도 없었다.¹⁰⁾

上 + 帝 = 上帝

하늘 위 임금, 하나님 하늘에 계신 통치자

9) Ibid.

10) Ibid., p. 28.

하늘의 최고 통치자인 상제를 섬겼던 고대의 기록이 공자가 편찬한 『서경(書經)』에서 발견되었는데, 주전 2,230년 순(舜) 왕조에 대한 기록이 가장 오래 된 것이다. 순(舜) 황제가 상제에게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사 의식은 국경 제사(國境祭祀)로 일컬어졌다. 그 이유는 황제가 하지(夏至) 날에는 국경의 가장 북쪽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동지(冬至) 날에는 국경의 가장 남쪽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자는中庸(中庸)에서, “하늘과 땅에 제물을 드리는 의식은 인간이 상제(上帝)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¹¹⁾

하지만 이들이 섬겼던 상제(上帝)는 과연 성경의 기록대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었는가?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황제가 대제사장과 같은 직분으로, 상제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국경 제사 의식을 집행할 때 낭송하는 기록물의 일부분을 살펴보자.

태고(太古)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만이 있었도다. 다섯 개의 행성은 회전을 시작하지 않았고, 해와 달도 빛을 비추지 않았도다. 이 깊은 흑암 속에 형체도 소리도 없었다. 오! 신령하신 주(主), 곧 신황(神皇)의 주관 아래 만물이 유래되었나이다. 당신은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나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나이다.¹²⁾

이 기록은 성경의 창세기와 유사하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담고 있다.

起初上帝創造天地(創世紀1:1)

태초(太初)에 하나님(上帝)이 천지(天地)를 창조(創造)하시니라. 땅이 혼돈(混沌)하고 공허(空虛)하며 흑암(黑暗)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神)은 수면(水面)을 운행(運行)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었고(창1:1-3)

11) Ibid, p. 37.

12) James Legge, The notions of the Chinese Concerning God and Spirits(Hong Kong Register Office, 1852), p. 28,의 재인용(C. H. Kang & E. R. Nelson,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이강국 역(서울: 미션하우스, 1991), p. 38.

황제가 낭송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당시 고대인들은 상제에 대해서 아버지와의 같은 사랑의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나이 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당신께 흡족한 경배를 드리지 못하였나이 다.¹³⁾

이 국경 제사의 낭송문은 상제의 긍휼(矜恤)하심을 찬양하며 끝을 맺는다.

당신의 선(善)하심은 끝이 없나이다. 당신은 토기장이 같이 모든 생물을 만드셨나이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나이다. 당신의 불쌍한 종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오직 당신의 선(善)하심뿐이며, 우리의 감정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나이다. 당신의 크신 사랑을 따라 우리의 허물을 책망하지 마시고, 같이 참으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번영을 허락하소서!¹⁴⁾

이 낭송문의 마지막 부분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나이다.(사64:8-9)

이상과 같은 고대 한족의 '上帝 숭배'에 대해 Kang과 Nelson(C. H. Kang & E. R. Nelson)은 그들의 저서인 「漢字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상 숭배에 대한 관습은 황제(皇帝)가 대제사장(大祭司長)으로서 하늘에 계신 최고의 통치자이신 삼제(上帝)께 제물을 드렸던 것을 모방한 데서 비롯된 듯 싶다.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따라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기록이 있듯이, 원래 제사

13) Ibid.

14) Ibid., p. 39.

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개념이 생기게 되었는데, 대제사장으로 상제(上帝)께 제사를 드렸던 최초의 황제가 죽게 되면, 그의 영혼은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믿게 되었다. 초기의 황제들은 후대에도 영웅시 되었으며, 마침내는 가족의 족장들도 숭배의 대상이 되었는데, 조상들은 신적인 존재는 아니었지만, 현재와 미래에 안림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영적 중재자로 간주되었다.¹⁵⁾

이런 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특히 강조되는 조상숭배 의식은 사실 공자 때보다 훨씬 이전에 생겨났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원래 중국의 조상들은 창조주이시며 살아 계신 유일한 하나님인 상제를 섬겼고, 나라의 임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상제께 희생 제물을 드렸으며, 생시에 홀랐던 조상들은 죽어서도 후손들에게 상제(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중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교와 불교가 소개됨에 따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상제를 섬겼던 원래의 의식은 변질되었다. 더욱이 고대의 많은 기록들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가 어려워졌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변질되고 혼탁해지게 된 것이다.¹⁶⁾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황제 사상(皇帝思想)'은 그대로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전수되어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이다. 즉, 중국의 통치자(皇帝)는 그 나라와 우주(宇宙)와 그 밖의 모든 것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통치자의 노력이 성공하면 그 시대는 자연의 재해와 정치적인 수단으로부터 보호받고 백성들은 평화 가운데서 살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백성의 삶에 중요한 날(日)들을 들어 파종일(播種日), 결혼일 등-은 황제가 정하는 것이었다. 모든 백성은 그 날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주의 조화를 깨뜨려 나라에 재난을 가져오며, 또한 그 책임을 묻게 된다. 그리고 국가적인 흉년이나 재난이 크게 일어나면 황제가 책임을 감당해야했다.¹⁷⁾

15) C. H. Kang & E. R. Nelson, pp. 39-40.

16) [사기·진시황본기(史記·秦始皇本紀),의 기록에 따르면 시황 34년(기원전 213년) 진시황은 승상(丞相) 이사(李斯)의 건의를 받아들여 분서(焚書)를 단행했다. 중국문화의 거대한 유산들이 연기로 사라져 버렸다. 따라서 진국 이외의 역사서와 제자백가의 학술사상을 기록한 서적들의 대부분이 소실되면서 진대 이전의 수많은 역사사실과 학술사상의 자취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른바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이다.

17) 데니스 레인,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전체주의 왕국", 『빛과 소금』, 1996년 10월호.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 행해지는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황제가 직접 드리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결과로 국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자연 재해가 닥칠 때, 백성들은 과연 황제가 이 '하늘(天: 上帝)'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당연히 갖게 된다. 만일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백성들은 황제가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게 되고, 그를 황제의 자리에서 밀어내어도 좋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¹⁸⁾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은 통치자(皇帝)가 다시 그 힘을 빌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즉, 일단 통치자의 자리에서 밀려난 자가 다시금 그 자리를 되찾는 일은 중국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장개석 총통이 다시 중국의 통치자가 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비친 그는 하늘로부터 이미 버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터진 각종 자연의 재해들로 인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긴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1989년 6월에 터진 천안문사건 역시 하늘로부터 임명을 받은 관료들에게는 경고였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늘로부터의 정권에 대해 믿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5천 년 역사 동안 중국인의 의식 속에 흘러온 그 사상이 불과 반세기 동안의 세뇌교육으로 없어졌을 리는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¹⁹⁾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서기 1,800년경에, 중국 선교사들이 최초로 성경을 한자(漢字)로 번역하였는데,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다. 많은 연구 조사 끝에 이 선교사들도 중국의 고대 조상들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신(神)을 섬겼던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하나님’을 ‘상제(上帝)’로 번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²⁰⁾

중국의 종교를 깊이 연구한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지나온 중국 역사의 5천여 년 동안, 중국인들은 상제의 형상을 조각 일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상제는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상제는 땅과 하늘이 조성되기 전부터 존재하였다. 그 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며, 연대가 끝이 없으신 분이시

18) Ibid.

19) Ibid., p. 115.

20) C. H. Kang & E. R. Nelson, p. 43.

다.”²¹⁾

5. 한의학(漢醫學, 韓醫學)의 형성과 이에 대한 성서적 고찰

이제 우리는 한의학도 바벨에서 극동으로 이주해 온 이들이, 그 조상들로부터 전해 받은 의학의 지혜와 지식을 근본으로 해서 형성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비결은 한의학이 황제(黃帝) 때에 궁중의사(宮中醫師)인 기백(岐伯)에 의해서 한의학 최고(最古)의 기초이론서로 만들어졌다는 「황제내경(黃帝內經)」을 살펴보면 있다. 그렇다면 「황제내경」은 과연 어떤 책이며, 이 최고(最古)의 의서(醫書)는 성경(聖經)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1) 한의학의 기초이론의 성립

현존(現存)하는 최고원전(最古原典)인 「황제내경」은 황하유역에 거주하던 한민족(漢民族)과 황하하류에서 산둥반도에 걸쳐 거주하던 동이족 사이에 발달한 민간 전래의술(民間傳來醫術)을 중심으로 집대성(集大成)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 내용은 후세에 많이 개수(改修)되었으나 현존하는 「황제내경」의 '소문(素問)'과 '영추(靈樞)' 두 책(二書)에 의(依)하여 그 원형(原形)을 엿볼 수 있다.²²⁾

A. 최고(最古)의 한의학 기초이론서-「黃帝內經」

「황제내경」은 현재까지 존재하는 의학적 중에서 마왕퇴(馬王堆)에서 출토된 의서(醫書)를 제외하고는 가장 그 연대가 빠른 것으로, 더욱이 한의학의 모든 근본 원리를 수록하고 있는 책으로서 최고(最古)의 서적이다. 그것은 곧 醫書로서 현재 알려져 있는 漢(韓)醫學의 문헌 중에서 最初의 그리고 가장 完備된 古典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의학원리는 현재까지도 한의학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이론의 근

21) Ibid.

22) 강효신, 「東洋醫學概論」(서울: 고문사, 1989), pp 1-2

거가 된다.²³⁾

내경(內經)은 의학이론으로 음양오행(陰陽五行), 오운육기(五運六氣), 장부경락(臟腑經絡), 병인병기(病因病機), 진단(診斷), 치료원칙(治療原則), 침구(鍼灸), 방약(方藥), 섭생(攝生), 예방(豫防) 등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생리(生理)와 병리(病理), 각종 질병의 진단(診斷), 치료(治療), 예후(豫後)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내경의 중요한 특징(特徵)은 인간의 생명 활동을 자연계층에 위치 지우고 고찰한 데 있다. 즉 내경은 '天', '人'의 상호관계의 구조 틀 속에서 음양오행(陰陽五行), 병기(病機), 진법(診法), 치료원칙(治療原則), 운기(運氣)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한 시대(秦·漢時代)의 천문학(天文學), 역법(曆法), 기상학(氣象學), 지리학(地理學), 심리학(心理學), 생물학(生物學) 등 여타 과학분야의 내용을 풍부하게 기록하고 있다.²⁴⁾

내경은 각각 81편씩, 총 162편으로 구성된, 소문과 영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부분에 있는 글자의 수는 대략 16만 자 정도이다. 이 책은 황제(黃帝)가 기백(岐伯) 등 6인의 신하(臣下)와 문답하고 토론함으로써 각종 의학이론을 밝혀나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⁵⁾

B. 「황제내경」의 역사적 고찰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 이전 시대에 삼황오제((三皇五帝)가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곧, 인간을 만들었다는 여와, 사냥을 시작했다는 태오(太昊) 복희(伏羲), 농경법(農耕法)과 약초(藥草)의 이용법(利用法)을 가르쳐 주었다는 염제(炎帝) 신농(神農), 이 삼인(三人)을 삼황(三皇)²⁶⁾이라 하며, 그들의 뒤를 잇는 황제(黃帝), 전

23) 홍원식, 「黃帝內經素問」(서울: 전통문화연구원, 1996), p. V.

24) Ibid., pp. V-VII.

25) Ibid., p. VI.

26) 운두추(運斗樞)나 원명포 등의 위서(緯書: 경서의 뜻에 비추어 인간의 길흉화복을 기록한 책)들은 여와, 복희, 신농을 삼황(三皇)으로 제시하며, 상서대전(尙書大傳)이나 백호통의(白虎通義) 같은 문헌에서는 불(火)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수인(燧人)과 복희와 신농을 삼황으로 주장한다. 또한 제왕세기(帝王世紀)는 복희, 신농, 황제(黃帝)를 삼황으로, 통감외기(通鑑外紀)는 복희, 신농, 공공(共工)을 삼황으로 제시하고 있다.(참고: 김태성 편저, 「중국사 뒷이야기」, pp. 16-17.)

욱(項), 제국(帝), 요(堯) 그리고 순(舜)을 오제(五帝)²⁷⁾라고 한다. 그 후 하(夏)·은(殷)·주(周) 나라로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중국 歷史上 최초의 왕조는 은나라이다. 그리고 주 나라 이후의 역사는 그 사기(史記)에 의해서 빠짐없이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에는 제자백가(諸子百家)들에 의해서 고대 중국 문화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정치, 경제, 철학, 역사, 예술 및 의학 등에 있어서 놀라운 진보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 최초의 통일 왕국이었던 '진'(秦) 나라의 '시'(始) 황제(皇帝)²⁸⁾는 즉위 34년(기원전213년)에 승상(丞相) 이사(李斯)의 건의를 받아들여 분서(焚書)를 단행했다. 분서의 구체적인 방법은 의학(醫學)과 점술(占術), 식물재배에 관계된 책과 관가(官家)에서 소장하고 있는 진국(秦國)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제외하고, 민간(民間)에서 소장(所藏)하고 있는 시경(詩經)과 상서(尙書),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 등 모든 책들을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몰수하여 불태우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죽간(竹簡)이나 목편(木片)에 새긴 고대(古代)의 서적들이 불타면서 중국 문화의 거대한 유산(遺産)들이 연기로 사라져 버렸다. 따라서 진국(秦國) 이외의 역사서와 제자백가의 학술사상을 기록한 서적들의 대부분이 소실되면서 진대(秦代) 이전의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학술사상(學術思想)의 자취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것이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이다.²⁹⁾

C. 「황제내경」의 저자(著者)

「황제내경」의 저자에 관해서는 책의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황제(黃帝)가 그 궁중의사(宮中醫師)인 기백(岐伯) 등과 함께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사실 그

27) 오제(五帝)에 대한 기록은 「세본(世本)」, 「대대기(大戴記)」, 「사기.오제본기(史記.五帝本紀)」 등에서는 황제와 전욱, 제국, 당요(唐堯), 우순(虞舜) 등을 오제로 꼽고 있고, 「예기·월령(禮記·月令)」에서는 태호와 염제, 황제, 소호, 전욱 등을, 「상서서(尙書書)」와 「제왕세기(帝王世紀)」에서는 소호(少昊)와 전욱, 고신(高辛:제국), 당요, 우순 등을 오제(五帝)로 지목하고 있다.(참고: 김태성 편저, 「중국사 뒷이야기」, pp. 16-17.)

28) 진시황(秦始皇)은 처음으로 '황제(皇帝)'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전설의 왕조였던 삼황(三皇)의 황(皇)과 오제(五帝)의 제(帝)에서 각각 따와서 자신을 삼황과 오제를 능가하는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황제(皇帝)'라고 부르게 했다.

29) 김태성, 「중국사 뒷이야기」, (서울: 실천문화, 1998), pp. 130-131.

진짜 저자가 누구이며 어느 시대에 성서(成書)되었는가 등의 문제는 현재에도 많은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한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경(內經)은 어느 한 개인의 저작이 아니며 수많은 의학 사상가(醫學思想家)들의 수세기 동안의 첨삭(添削)을 거친 서적으로 보인다. 즉, 소문(素問)은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수많은 의학자들이 그 때까지 존재했던 의학이론을 수집하여 기록한 것으로,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의 작품도 혼합되어 있다.

D. 「황제내경」의 기록 연대와 명칭

「황제내경」의 기록 연대는 대략 기원전 4세기경의 것에서부터 서기 2세기경의 것까지 다양하다. 영추(靈樞)는 전국시대에서부터 전한, 후한에 걸쳐 완성된 것 같다. 그러므로 「황제내경」의 대부분은 전국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완성은 전한과 후한을 거쳐 이루어진 것 같다.

「황제내경」이라는 명칭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춘추전국시대의 의서(醫書)에는 ‘금방(禁方)의 서(書)’라는 막연한 명칭만 존재하였는데, 전한 초기(前漢初期)(기원전 180년 경)에 ‘황제(黃帝)와의 관계가 생겨나고, 전한 말기(前漢末期)(기원전 1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황제내경’이라는 명칭이 나타났다. 「황제내경」이라는 책 이름이 최초로 나타나 있는 문헌은 「漢書」藝文志이다. 이 藝文志는 前漢 말기에 유향(劉向)의 아들 유희(劉歆)가 편집한 「七略」이라는 책에 기초하여 後漢의 반고(班固)가 편찬한 것이다.³⁰⁾ 따라서 「황제내경」이라는 이름은 劉向이 여러 책들을 편찬·교정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명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³¹⁾

‘소문(素問)’이라는 명칭이 가장 빨리 나타나는 곳은 3세기 초엽의 장중경(張仲景)의 상한론(傷寒論) 서문(序文)에서이다. 그 이후 1700년 동안 그 명칭에는 변화가 없다.

‘영추(靈樞)’라는 명칭은 唐 나라의 왕빙에 의하여 처음 불려졌다. 한나라의 장중경과 서진(西晉)의 왕숙화(王叔和)는 ‘구권(九卷)’이라고만 말하였고 서진의 황보밀(皇甫謐)이 ‘침경(針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간단하게 ‘구권(九卷)’이라고 부르던

30)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백정의.최일범 역(서울: 논장, 1990), p. 12.

31) ibid., p. 17.

것을 唐 나라의 왕방이 바꿔 부른 것이다. 결국 「針經」과 「靈樞」는 거의 같은 내용의 異本인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北宋의 초기에 「針經」을 소실하였고, 「靈樞」만 남았는데 그것도 손실된 부분이 매우 많아 完本이 아니었다. 그러나 北宋의 哲宗 치하의 원우(元祐) 8년(1093년)에 고려로부터 醫書가 獻上되었는데 그 중에서 9 卷本の 「靈樞」가 있었다. 이로써 중국은 완전한 「針經」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의 「靈樞」는 고려에서 獻上된 「針經」을 말하는 것이고 명칭이 「靈樞」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³²⁾

「황제내경」의 명칭이 정해진 시기는 상당히 늦어졌지만(前漢 말기: 기원전 1세기 말), 이 책이 저작된 시대도 마찬가지로 늦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史記 倉公傳」에는, 倉公이 高後 8년(기원전 180년)에 스승인 陽慶을 알현하고 그로부터 일군의 醫書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책들의 내용의 대부분이 현존하는 「황제내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³³⁾ 그리고 책 중에 언급된 시대는 다양하여, 이 책이 저작된 시대보다 매우 오래 전의 시대 상황의 전래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E. 「황제내경」과 동양사상의 유입(流入)

「黃帝內經」에 陰陽五行說의 도입과 더불어 道家의 思想이 자리하게 된 것은 戰國時代의 醫術家이자 道家였던 추연(鄒衍)이 陰陽說과 五行說을 결합하여 하나의 理論體系를 만들어 陰陽五行說을 의학상의 각종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이용하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³⁴⁾

그리고 「黃帝內經」과 여러 한의서적(漢醫書籍)에 도교를 비롯한 유교 등의 철학·사상 등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분서갱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철학·사상 등의 서적들이 소멸되는 가운데 의서(醫書) 종류는 살아남은 까닭에, 이 사건 이후 많은 철학, 종교 및 사상들이 향후에 다시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분서갱유’를 염려하여, 살아남기 위해 의학서적 속으로 스며들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⁵⁾

32) Ibid., pp. 20-23.

33) Ibid., p. 17.

34)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 ‘음양오행설’ 부분에서 할 것이다.

35) 김태성, 「중국사 뒷이야기」(서울: 실천문학, 1998), pp. 130-131. 참조.

그러므로 세월이 흐르면서 「황제내경」과 醫書들이 성서(成書)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속에는 당시 중국의 각종 철학과 사상들이 스며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F. 현재의 「素問」과 「靈樞」

a. 현재의 「素問」

우리가 현재 대하고 있는 「素問」은 唐의 왕빙(王冰)이 편찬하고 주를 붙인 <啓玄子次注>라고 불리는 것이다. '啓玄子'란 王冰의 別號이며 '次'란 편찬이라는 의미이다. 「素問」이 9권본(金元起注本)에서 24본으로 개편된 것은 王冰의 손에 의한 것이다. 이 책은 宋의 仁宗 가우(嘉祐) 2년(1057년)에 이르러 다시 고보형(高保衡)·손기(孫奇)·임억(林億) 등이 교정을 가하고 손조중(孫兆重)이 오류를 교정했다.

b. 현재의 「靈樞」

현재의 「靈樞」는 宋의 哲宗 元祐 8년(1093년)에 고려가 헌상한 「針經」이며 9권본이었던 것을 사승(史崧)이 개편하여 24권으로 만들었고 「靈樞」라 이름을 고쳤다. 「영추」의 원본은 일찍이 고보형(高保衡) 등의 교정을 거쳤는데, 당시 교정된 것은 완본이 아니라 殘本이고 그것도 일찍 소실되어 버렸다. 王冰이 개편한 24권본의 「素問」과 사승이 개편한 24권의 「靈樞」는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素問」과 「靈樞」이다.

c. 「黃帝內經」의 最古의 版本

淸 咸豐 2년(1852년)에 전희조(錢熙祚)는 「黃帝內經」을 펴낼 때에 이 두 책을 채택했다. 「황제내경」의 판본은 매우 많으며 「素問」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북경 도서관 소장의 금각본(金刻本)인데 남아 있는 것은 13권(「素問」 12권과, <素問遺篇> 1권을 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靈樞」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元의 胡氏古林堂에서 펴낸 판본이다. 여러 판본 중에서 교감(校勘)이 제일 상

세하게 잘된 것은 전희조(錢熙祚)의 것이다.

2) 「황제내경」의 성서적(聖書的) 고찰

A. 인간의 수명(壽命) 변화와의 연관성

a. 「황제내경」과 인간의 수명

「황제내경」素問의 上古天真論篇 第一, 第一章을 보면,

昔在黃帝, 生而神靈, 弱而能營, 幼而御癘, 長而教敏, 成而登天, 乃問於天師

曰: 余聞上古之人, 春秋皆度百歲, 而動作不衰: 今時之人, 年半百而動作者衰者, 時世異耶, 人將失之耶?

岐伯對曰: 上古之人, 其知道者, 法於陰陽, 和於術數, 飲食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動, 故能形與神俱, 而盡終其天年, 度百歲乃去, 今時之人不然也, 以酒爲漿, 以妄爲常, 醉以入房, 以浴竭其精, 以耗散其真, 不知持滿, 不時御神, 務快其心, 逆於生樂, 起居無節, 故半百而衰也

옛날에 황제(黃帝)가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신령하여 아주 어릴 때에 능히 말을 하였고, 유년 시에 순재(御癘)하였으며, 장성하여서는 돈민(教敏)하였고, 공업(功業)을 이루고(成) 나서 등천(登天: 천지의 위에 등극)하셨다. 이에(천자가 되신 연후에) 황제(黃帝)가 천사(天師)에게 물기를, "옛날 사람들은 100세가 넘는 사람들도 동작이 쇠퇴하지가 않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나이 50세가 되면 동작이 쇠퇴해지고 근육도 나타(懶惰)해지니 시대의 차이 때문인가 사람들의 섭양(攝養)이 잘못된 탓인가?"

(天師되는) 기백(岐伯)이 대답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도를 알아서 음양과 술수(術數)를 화(和)해서 음식을 잘 조절하고 기거(起居)의 규칙을 항상 따랐고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체와 정신이 모두 건실하여서 천년(天年: 天壽)을 맞이하여 100세를 넘어서야 거(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술(酒)을 장(漿)으로 생각하여 망령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취한 채로 입방(入

房)하여 정욕을 자행(恣行)하고 있으니 정기(精氣)가 고갈되고 진원(眞元)도 소모되고 절욕도 하지 않고 신(神)의 조정도 하지 않으니 자심(自心)만의 쾌감(快感)만을 취하여 사는 즐거움(生樂)에 역(逆)하고 기거(起居)에도 절도(節度)가 없으므로 반백(半百, 50세)에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기록이 있고,

上古天眞論篇 第一, 第四章을 보면,

黃帝曰:余聞上古有眞人者, 提 天地, 把握陰陽, 呼吸精氣, 獨立守神, 肌肉若一, 故能壽天地, 無有終時, 此其適生. 中古之時, 有至人者, 淳德全道, 和於陰陽, 調於四時, 去世離俗, 積精全神, 游行天地之間, 視聽八達之外, 此蓋益其壽命而強者也, 亦歸於眞人. 其次有聖人者, 處天地之和, 從八風之理, 適嗜慾於俗世之間, 無 喪嘆之心, 行不欲離於世, 被服章, 舉不欲觀於俗, 外不勞形於事, 內武思想之患, 以恬愉爲務, 以自得爲功, 形體不, 精神不散, 亦可以百數. 其次有真人者, 法則天地, 象以日月, 辯列星辰, 逆從陰陽, 分別四時, 將從上古合同於道, 亦可使益壽而有極時.

황제(黃帝)가 말하기를, 내(余)가 듣건대, 상고(上古)에 진인(眞人)이 있었는데 천지(天地)를 제설(提)하고 음양(陰陽)을 파악하여 정기(精氣)를 호흡해서 독립(獨立)하여 신(神)을 지켜 기육(肌肉)이 한결 같았으므로 능히 수(壽)가 천지(天地)를 폐하여 천지(天地)가 진(盡)하도록 수(壽)하여 종시(終始)가 있지 않았으니, 이는 그 도(道)로서 생(生)함이고(살음이)고, 중고(中古) 시(時)에는 지인(至人)이 있었는데 덕(德)을 형(박)하게 하고 도(道)를 온전히 하여 [형(박)한 덕과 온전한 도로] 음양(陰陽)을 화하고 사시 사철을 조절하며 (몸은)世俗에 있지만 정신은) 속세를去하고 俗을 離하여(즉,世俗을 벗어나) 정(精)을 쌓으면서 신(神)을 완전하게 하고, 하늘과 땅 사이를 다니면서 八方的 안과 밖을 보고 들으니 이것이 그의 命을 보태주어 強해진 사람이니, 또한 진인(眞人)에 속하며, 다음은 성인(聖人)이 있었는데 천지의 중화에 處하여 八風의 理致에 따라 世俗의 사이에서 기육(嗜慾)을 조절함으로써 예진(喪嘆)의 마음을 두지 않으며, 행실은 세속을 떠나고자 하지 아니하되 舉動은 世俗을 離하러(본받으려)(世俗에 관하여 (보이려,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며, 밖으로는 입에 形(몸)을 勞하지(수고롭게 하지) 아니하고 內로는 思想의 患(생각하는 근심)을 두지 않으며, 영유(恬愉)로써 務를 삼고 自得함으로서 功을 삼아, 形體가 폐하지 아니하고 精神이 산(散)하지 아니하니, 이는 可희 百數로써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賢인이 있어서 天地를 法則하고 日月을 象似하고 星辰을 辨別하고 陰陽을 逆從하고 四時를 分別하여, 짐차 上古를 從하여 道에 合同하려 하였는데, 또한 可히 하여금 壽(命)을 益하기는 하였으나(壽命을 延長할 수는 있었으나) 極時가(壽命을) 다하는 때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기록을 살펴볼 때 인간의 수명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해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고대의 인류는 더욱 장수했으며, 「황제 내경」이 기록되는 당대에 와서는 그 수명이 50여 세 정도로 감소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다.

b. 성서적 연관성

‘上古天眞論篇 第一, 第四章’의 기록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서에 기록된 고대 인류의 모습을 대하는 것 같다. 즉 上古의 진인(眞人)은 에덴동산의 아담 같이 수명을 누리며, 中古의 지인(至人)은 타락 후의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셋 계보의 사람들 같으며, 다음 성인(聖人)은 대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의 모습 같으며, 그 다음 현인(賢人)은 그 수명이 극(極: 허용적 한계수명)에 이르러 천수(天壽 120세)를 누리는 아브라함 시대(기원전 2,000년경)를 보는 듯하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素問」의 上古天眞論篇을 살펴볼 때 현인(賢人)의 시대에 와서는 그 평균 수명(天壽)은 100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인간의 天壽가 120세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³⁶⁾ 왜 인간의 수명의 감소와 한계적 제한이 있게 된 것인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³⁷⁾

耶和華說人既屬乎血氣,我的靈就不永遠住在他裏面,然而他的日子還可到一百二十年(創世記2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靈)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36) 손영규, 「기독교 세계관과 치유신학」, 석사학위논문 (서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1996), pp. 69-72.

37) Ibid. pp. 72-92. 참조.

이 육체가 뒹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 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창6:3).

그리고 황제(黃帝)와 기백(岐伯)이 살았던 시대³⁸⁾는 현인(賢人)의 시대를 지나 '범인(凡人)의 시대'임을 의미하고 있다. 왜냐하면 황제의 시대는 이미 100세를 살던 시대가 아니요, 반백(半百)의 시대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제(黃帝)의 시대는 대략 주전 1800-1500년경으로 추정한다. 이 때는 성경상 대략 모세의 시대(B.C. 1500)와 동시대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모세 당시의 인간들의 수명이 역시 반백(半百)을 좀 넘어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편 90편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그 당시의 범인의 수명이 70세 정도임을 고백하고 있다.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90:10)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황제내경」이 언급하고 있는 전설상의 고대인류는 중국 땅에 있었던 '유인원(類人猿)'의 진화된 모습의 회고에 대한 神話의 기록이 아니고, 에덴과 바벨을 중심으로 살았던 고대 인류조상들의 모습을 그들의 조상 대대로 전해져 온 실제의 이야기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대륙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노아의 후손'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세월이 흐르면서, 각색되거나 더러는 왜곡되어 傳說과 說話의 형태로 전해져 왔던 것이다.

B. 「황제내경」의 저작 배경(著作背景)에 관한 연관성

a. 「황제내경」의 저작 배경

앞서 인용한 「황제내경」素問의 上古天真論篇 第一, 第一章은 「황제내경」의 전체 글 중에서 가장 먼저(最古) 기록된 글이자, 맨 처음 자리에 기록되어 있는 서문(序

38) 물론 실제 黃帝가 살던 시대가 아니라, 황제내경이 쓰여진 시대인 기원전 4세기경일 수도 있다.

文)과 같은 글로서, 이 책(黃帝內經: 醫書)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 '내가 듣건대'라는 표현 속에서 이 의서(醫書)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들을 모은 것'으로 인간의 수명, 건강, 질병, 치료 그리고 예방 등에 관해 기록한 책(醫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광활(廣闊)한 지역의 '자연 환경 속에서 생활의 지혜로 얻어진 경험의술(經驗醫術)'이 함께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素問의 異法方宜論에 보면,

동방(東方)의 지(地)는 해빈(海濱)에 면접(面接)하여 종기(氾氣) 같은 것이 많았으므로, 편석에 의(依)한 외과적(外科的) 요법(療法)이 발달(發達)하였고, 서방(西方)은 산악지대(山岳地帶)이므로 약물(藥物)에 의(依)한 치법(法治)이 발달(發達)하였고, 북방(北方)은 고원(高原)이므로 한랭(寒冷)하여 구(灸)에 의(依)한 자극요법(刺激療法)이 발달(發達)하였고 남방(南方)은 습기(濕氣)가 많은 토지(土地)라서 침술(鍼術)이 생겼고, 중앙지(中央地)는 평야(平野)이므로 인간(人間)이 집중(集中)되어 도인안교의 술(術)이 발생(發生)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각 지방의 풍토(風土)와 민정(民情)에 따라 각기 최적한의 약술(醫藥術)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의술(醫術)을 모아서 엮어, 하나의 의학으로 체계화한 당시의 경향을 엿볼 수 있게 한다.⁹⁾

b. 성서와의 연관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古代)'는 여러 시대로 '동일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 그 '평균 수명이 동일하지 않은 시대들'을 지내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우리는 '성서(聖書, 創世記)'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의학의 기초 이론과 원리를 담고 있는 이 책(黃帝內經)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바벨탑 사건 이후 중국 지역으로 동진(東進)해 온 노아의 후손들 중의 일부에 의해서 엮어진 것으로, 創世 이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조상들의 智慧를 바

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上帝)께로부터 비롯된 智慧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을 중심으로 한 광활한 지역의 자연 환경 속에서 생활의 지혜로 얻어진 경험의술(經驗醫術)도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모든 인간들에게 '일반 섭리'를 통하여 당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우주(宇宙)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萬有)를 지으신 신(神)께서는 천지(天地)의 주재(主宰)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萬民)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이심이라. 인류(人類)의 모든 족속(族屬)을 한 혈통(血統)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年代)를 정하시며 거주(居住)의 경계(境界)를 한(限)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흠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起動)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詩人)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所生)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神)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神)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교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公義)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證據)를 주셨음이니라. (행17:24-31)

C. 인간과 자연의 상응조화(相應調和)

a. 「황제내경」의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

「素問」의 寶命全形論篇 第一章을 보면,

黃帝問曰：天覆地載，萬物悉備，草實於人，人以天地氣生，四時之法成

황제(黃帝)께서 문(問)하여 가라사대, 天은 복(覆)하고 地는 재(載)하여 만물(萬物)이 실비(悉備)하여 있으나 그 중에 人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 人은 천지(天地)의 기(氣)로써 생(生)하고 사시(四時)의 법(法)으로써 성(成)함이라.

라고 하였다. 이것은 곧, 自然界에 萬物이 있지만 人間이 가장 高貴하며, 인간은 自然界의 작용에 依存함으로써 生命이 유지되고, 四季의 生·長·收·藏이라는 自然의 법칙에 順應하면서 生命活動을 維持한다는 것이다.

또한 「황제내경」 靈樞의 邪客 第七十一, 第二章에 보면,

黃帝問於伯高曰：願聞人之肢節，以應天地奈何？

伯高答曰：天圓地方，人頭圓足方以應之，天有日月，人有兩目：地有九州，人有九竅… 此人與天地相應者也。

黃帝께서 伯高에게 問하여 가라사대, “願컨데 人의 肢節이 天에 應함은 어떠합니까[人의 肢節을 天지에 應함을 어떻게 합니까]?”

伯高가 答하여 가로되,

“天은 圓하고 地는 方하니, 人의 頭가 圓하고 足의 方함이 天에 應하고 天에 日月이 있으니, 人에는 兩目が 있으며：地에 九州가 있으니, 人에는 九竅가 있고… 이것이 人이 天地와 더불어 서로 應(相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곧, 人體와 생명 현상을 維持하는 모든 것은 다 天地運行 理致와 相應하여 營爲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自然의 理致를 人體 生理體系의 模型을 구성하여 韓의학 특유의 生理 체계의 기초이론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³⁹⁾

b. 성서와의 연관성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황제내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이치들이 聖書 속에 이미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耶和華上帝用地上的塵土造人，將生氣吹在他鼻孔裏，他就成了有靈的活人，名叫亞當(創世記

39) 강효신, 「東洋醫學概論」(서울: 고문사, 1969), p. 1.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生靈)이 된지라(창2:7).

이 말씀은 '하나님(上帝)'이 땅(地)의 흙먼지(塵土)로 인간을 지으셨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나(창1:3-25), 그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尊貴한 存在로 지으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창1:26,27). 그러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天地 萬物을 다스릴 權勢를 아울러 주셨던 것이다(창1: 26-28).

人間은 生育하고 繁盛하여 땅에 充滿하여지고, 땅을 征服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能力을 附與받고 창조된 것으로, 원래는 썩지 아니할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고전15장).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지어진 인간이 썩을 것으로, 죽지 아니할 인간이 죽을 것으로 순식간에 모두 변해버렸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다(창3:19; 고전15장). 그리고 또 다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靈)'이 인간에게서 떠나고(창6:3)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결과 자연의 대변화가 초래되었고, 인간은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權세를 잃어버리고 天地運行理致 속에, 四季의 循環 속에, 자연에 順應하여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참조, 창8:22).⁴⁰⁾

「황제내경」은 단지 타락 이후, 특히 노아 홍수 이후의 自然像과 人間像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聖書는 森羅萬象과 人間이 '왜?' 그리고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3:19).

40)인간의 타락 이전, 인간이 처음으로 창조될 당시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창1:28). 그러나 타락 이후, 특히 대홍수 이후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고만 하셨음을 볼 수 있다(창9:1).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자연을 초월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인간이, 타락 이후 썩어질 몸으로 변화하여 자연에 순응하여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播)과 거둠(收)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福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生育하고 繁盛하여 땅에 充滿하라(창8:22:9:1).

인간과 자연과 관련하여 「黃帝內經」과 「聖書」의 연관성을 살펴 볼 때, 「황제내경」에서는 自然과 人間의 조화와 불균형이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으며, 하늘과 인간이 서로 相應하는 것이 健康을 유지하는 道理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聖書에서는 「황제내경」의 그러한 모든 개념을 포함하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답으로 天地運行과 天人相應의 주제가 自然의 한 부분에 속하는 ‘하늘(天)’이 아니라, 살아 役事하시는 ‘實存의 하나님(上帝)」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여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살아야 하면서도, 더 고차원의 질서에 속한 ‘하나님의 지식(道)’을 따라 살 것을 가르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잠언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잠 14:27).

천지 만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상으로써 「황제내경」은 병들고 상처받은 인간을 치료하고 돌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神仙이 사는 세계’를 추구하는 ‘도교의 인간관’과, 모든 만물의 존재가 서로 들고 도는 ‘윤회의 세계’를 주장하는 ‘불교적 인간관’ 등에서는 天地間의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황제내경」의 주장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寶命全形論篇 第一章의 글은 「黃帝內經」중에서도 陰陽五行說의 영향이나 다른 종교·철학적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초기에 기록된 글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D. 음양오행설과의 연관성

a. 「황제내경」과 음양오행설

陰陽五行說은 漢(韓)醫學의 基礎原理이다. 漢(韓)醫學의 自然觀과 人體의 生理, 病

理 그리고 診斷, 治療, 藥物 등에 대한 理論은 모두 陰陽五行說에 의하여 설명된다.

漢(韓)醫學은 중국의 戰國時代에 그 대부분이 完成되었다. 그 당시는 陰陽五行說이 思想界의 主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醫學者들은 이 學說을 인용하여, 그 이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던 經驗的 醫術들을 集大成해서 체계적인 漢(韓)醫學으로 발전시켰다.⁴¹⁾

a) 醫書인 「黃帝內經」에서 언제 陰陽五行說이 도입(導入)되었는가?

사실 「素問」의 前記 부분의 내용에는 陰陽五行을 설명하는 부분과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음양오행설은 春秋·戰國時代의 인물인 추연(鄒衍)⁴²⁾에 의하여 발전·완비되었다. 따라서 「素問」의 이 부분에서 陰陽五行을 설명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저작된 시대는 비교적 빠르며, 陰陽五行을 설명한 부분은 추연의 晩年이나 추연 이후에 저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양오행을 말하지 않는 부분은 아마도 기원전 4세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기원전 3세기 중엽의 저작이라고 볼 수 있다.⁴³⁾ 그러므로 「黃帝內經」에서 陰陽五行說이 도입되어 자리잡게 된 시기는 기원전 3세기 중엽의 저작에서부터일 것으로 추론된다.

b) 醫書인 「黃帝內經」에 陰陽五行說이 도입된 배경은 무엇인가?

陰陽五行說은 원래 陰陽說과 五行說의 독립된 두 派로 나뉘어 있었다. 따라서 陰陽說을 주장하는 學派는 陰陽家, 五行說을 주장하는 學派는 五行家로 불리었다. 이 두 과의 說이 처음으로 나타났을 무렵의 陰陽과 五行이란 宇宙에 대한 일반인식으로서 經驗을 통하여 산출된 것이었다. 그것이 추연(鄒衍)에 와서 두 과의 學說이 결합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이론 체계가 되었던 것이다. 이 이론체계는 여러 학파에 수용되어 그들 학파의 학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석하는 수단이 되었다.⁴⁴⁾

41) 강효신, 「東洋醫學概論」(서울:고문사, 1989), p. 11.

42) 추연(鄒衍)의 생존 연대는 양계초(梁啓超)의 「先秦學術年表」에 의하면 기원전 340-260년 춘추전국시대로 추정된다.

43) 용백건, p. 35.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온 의료의 실천경험을 발전시켜 왔던 醫術家は 春秋時代 말기(기원전 5세기 전반)에 이르러 처음으로 陰陽의 理論을 도입하여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戰國時代 후기(기원전 3세기 전반)에 와서야 겨우 그 무렵 새롭게 부흥한 陰陽五行說을 모두 받아들여 이용하고 새로이 발전시켜 의학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석하고, 의학의 이론 체계를 구축했다고 본다. 따라서 「黃帝內經」의 陰陽五行說이 이렇게 도입되었을 것이라는 근거로서 「史記」扁鵲傳에 기재되어 있는 두 가지의 治驗例를 보면 거기에서는 陰陽은 거론되고 있지만 五行은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근거를 살펴보면, 창공(倉公)은 漢의 文帝시대(기원전 2세기)의 사람인데 「史記」倉公傳에는 倉公의 26종의 치료 사례가 나타나 있고 거기에는 陰陽과 五行이 모두 거론되어 있다. 그러므로 醫術家가 陰陽五行說을 받아들여 이용한 것은 戰國時代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설명한 대로 「黃帝內經」의 주요부분은 戰國時代에 著作되었다는 사실이다.⁴⁵⁾

c) 「黃帝內經」과 道家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古代的 醫術家와 神仙家は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醫術家가 목표로 하는 '연년익수(延年益壽)'와 神仙家の '長生不老'란 본래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漢書」藝文志의 方技略에는 醫經·經方·房中·神仙의 4家が 함께 열거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戰國時代에 醫術家이자 道家였던 추연(鄒衍)은 陰陽과 五行을 결합하여 하나의 理論體系를 만들어낸 인물임과 동시에 陰陽五行說을 의학상의 각종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이용한 最初의 인물로 여겨진다.⁴⁶⁾ 그러므로 「黃帝內經」에도 陰陽五行說의 도입과 더불어 道家의 思想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되었다.

그 후 陰陽五行說의 醫學에의 적용은 더욱 발전되어, 東漢의 張仲景은 「내경」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傷寒雜病論」을 저술하고, 自序中에 “「素問」九卷. 八十一難. 陰陽大論. 胎. 藥錄과 平脈辨證을 選用해서 「傷寒雜病論」十六卷을 만들었다”라고

44) Ibid., p. 107.

45) Ibid., pp. 107-108.

46) Ibid.

記述하였다. 이 著作은 理論과 實際를 결합시킨 最初의 漢(韓)醫學臨床書이다. 仲景은 傷寒論의 六經證治와 雜病論(金要略)에 五行運用에 관한 實例를 설명해 놓음으로써 漢(韓)醫學의 醫療規範을 確立하였다.⁴⁷⁾

d) 陰陽의 基本 概念

陰陽의 基本 概念은 陰陽의 對立과 互根, 消長과 平衡 그리고 陰陽의 轉化의 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素問」의 陰陽應象大論篇 第五, 第一章을 보면,

黃帝曰：陰陽者，天地之道也，萬物之綱紀，變化之父母，生殺之本始，神明之府也，治病必求於本。故積陽爲天，積陰爲地，陰靜陽躁，陽生陰長，陽殺陰藏，陽化氣，陰成形，寒極生熱，熱極生寒，寒氣生瀉，熱氣生，清氣在下，則生泄，濁氣在上，則生脹，此陰陽反作，病之逆從也。

黃帝께서 가라사대, “陰陽은 天地의 道이니, 萬物의 綱紀이며, 變化의 父母이며, 生殺의 本始며, 神明의 府이라, 病을 治한엔 반드시 本에서 求해야 합니다. 故로 積陽이 天이 되고, 積陰이 地가 되며 : 陰은 靜하고, 陽은 躁하며: 陽은 生하고 陰은 長하며, 陽은 殺하고 陰은 藏하며 : 陽은 氣를 化하고, 陰은 形을 成하며 : 寒이 極하면 熱을 生하고, 熱이 則하면 寒을 生하며 : 寒氣는 瀉을 生하고, 熱氣는 泄을 生하는데, 清氣가 下에 在하면 泄(泄)을 生하고, 濁氣가 上에 在하면 脹을 生하니, 이것이 陰陽의 反作이며 病의 逆從입니다.

「素問」의 四氣調神大論, 第二章을 보면,

夫四時陰陽者，萬物之根本也。所以聖人春夏養陽，秋冬養陰，以從其根，故與萬物沈浮於生長之門。逆其根，則伐其本，壞其真矣。

대저 사시음양(四時陰陽)은 만물(萬物)의 근본(根本)이라, 그러므로 성인(聖人)이

47) 강효신, p. 11.

춘하(春夏)에 양(陽)을 양(養)하고 추동(秋冬)에 음(陰)을 양(養)하여 (씨) 그 근(根)을 종(從)하므로 만물(萬物)과 더불어 생장(生長)의 문(門)에 침부(沈浮)하는 바이니, 그 근(根)을 역(逆)하면 그 본(本)을 벌(伐)하여 [伐하고 그 진(眞)을] 과(壞)하게 되나니,

四氣調神大論, 第三章을 보면,

故陰陽四時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 逆之則災害生, 從之則苛疾不起, 是謂得道

그러므로 음양사시(陰陽四時)는 만물의 종시(終始)이며 생사(生死)의 근본(根本)이라. 이를 종(從)하면 가질(苛疾)이 기생(起生)하지 못하나(니), 이를 일러 도(道)를 얻었다고 하느니라.

라고 했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만물의 生長發展과 消滅은 언제나 陰陽 변화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陰과 陽은 서로 對立하면서도 또한 統一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調和가 極하면 陰은 陽으로, 陽은 陰으로 轉化하고 그 균형을 잃게 된다. 질병이 일어남도 이에 起因한다. 그러므로 질병의 치료도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살펴서 치료해야·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e) 五行의 基本概念

五行이란 木·火·土·金·水를 말한다. 오행설은 원초적으로 우주의 모든 물질이 이 다섯 가지의 기본원소로 구성되었다는 설명이다. 班固는 「白虎通義」 五行篇에서 “五行이란 어떠한 것인가? ‘五’는 金·水·木·火·土를 가리키는 것이다. ‘行’이란 天이 氣를 순환시키는 것(움직이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五行은 운동하면서 休止함이 없고 그 운동에는 相生과 相剋이 있다.⁴⁸⁾ 五行家는 五行의 相生相剋 관계로서 사물간의 相互關聯 및 그 운동의 變化規律을 해석하기 위한 理論的 手段으로 삼았다.⁴⁹⁾

48) 용백건 p. 121.

49) 강효신, p. 18.

그러나 사실 宇宙 속에 존재하는 모든 事物을 五行에 배당하는 것은 일부분은 이해될지 몰라도 그 대부분의 경우 왜 그렇게 배당이 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尙書」의 洪範篇에서는, 처음에는 五味를 五行에 배당하였다가 그것을 후에 점차로 발전시켜 四時·四方·五色·五音·五蟲·五事·五穀·五畜·天干·地支·六律·六呂 등을 五行에 배당했다. 이들의 배당에는 각 派마다의 의견이 분분하여 일정치 않았다.⁵⁰⁾

그러나 「黃帝內經」에서의 陰陽五行의 발전이란, 醫學上の 각종 사물에 대한 陰陽五行의 配當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陰陽五行說이 「黃帝內經」에서 의학적인 전문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陰陽의 의학적 배당이란 예컨대 六腑(바깥으로 통한다)는 陽으로, 五臟(안에 있어서 바깥과 통하지 않는다)은 陰으로, 氣(비교적 가벼운)는 陽으로 血(비교적 무거운)은 陰으로 귀속시킨 규정으로, 이것들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學派의 의견도 醫學의 적용에서는 대부분 一致하며 배당도 고정되어 있다.⁵¹⁾

의학상의 五行의 배당에는 五臟·五竅·五體·五臭·五聲·五志 그리고 五脈 등이 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배당된 것인지 대부분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나 五臟과 五行의 배당은 의학에 있어서 모든 五行 配當의 기본이 되는 出發點으로서 중요한 문제이다.⁵²⁾ 이 기본적 원리에 의해서 漢(韓)醫學의 藏象學說이 자리잡게 되었고, 진단학(診斷學)의 기초를 세우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素問」六節藏象論篇 第九, 第四章을 보면,

帝曰：善。余聞氣合而有形，因變以正名。天地之運，陰陽之化，其於萬物，孰少孰多，可得聞乎？

岐伯曰：悉哉問也。天至廣不可度，地至大不可量，大神靈問，請陳其方。草生五色，五色之變，不可勝視；草生五味，五味之美，不可勝極，嗜欲不同，各有所通。天食人以五氣，地食人以五味，五氣入鼻，藏於心肺，上使五色精明，音聲能彰，五味入口，藏於腸胃，味有所藏，以養五氣，氣和而生，津液相成，神乃自生。

50) 용백건, p. 109.

51) ibid., p. 110.

52) ibid.

帝께서 가라사대, 善합니다. 余가 듣건대, 氣가 合함에 形이 있게 되고 變은 因하여 名을 正한다고 하는데, 天地의 運과 陰陽의 化, 그것이 萬物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어느 것이 적고 어느 것이 많은지를 可히 얻어들을 수 있겠습니까?

岐伯이 가로되, “실(悉)하도다. 問(하심)이여! 天은 至廣하여 可히 度하지 못하고, 地는 至大하여 可히 量하지 못합니다. 大神靈한 問이시니, 請컨대 그 方(道理)을 陳하겠습니까. 草가 五色을 生하는데, 五色의 變은 可히 勝觀하지 못하고, 草가 五味를 生하는데, 五味의 美는 可히 이루 다하지(極) 못합니다. 嗜欲은 同하지 않으나 各기 通하는 바가 있습니다. 天은 人을 五氣로써 食하고 地는 人을 五味로써 食하는데, 五氣는 鼻로 入하여 心肺에 藏하여, 위로 五色이 修明하고 音聲이 能히 彰하게 하며; 五味는 口로 入하여 腸胃에 藏하는데, 味에는 藏한바가 있어서 卍 五氣를 養하며, 氣가 和함에 生하고 津液이 相成하며, 神이 이에 스스로 生(旺)합니다.”

「素問」 宣明五氣論篇 第二十三에 의하면,

五味所入：酸入肝，辛入肺，苦入心，鹹入腎，甘入脾，是謂五入 五精所并：精氣并於心則喜，并於肺則悲，并於肝則憂，并於脾則畏，并於腎則恐，是謂五并，虛而相并者也 五味所禁：辛走氣，氣病無多食辛，鹹走血，血病無多食鹹；苦走胃，胃病無多食；甘走肉，肉病無多食甘；酸走筋，筋病無多食酸；是謂五禁，無令多食多病所發；陰病發於骨，陽病發於血，陰病發於肉，陽病發於冬，陰病發於夏，是謂五發。

五味所入：鹹味는 肝에 入하고, 辛은 肺에 入하고, 苦는 心에 入하고, 鹹을 腎에 入하고, 甘은 脾에 入하니, 이를 일러 五入이라고 한다. 五精所病：精氣가 心에 逆하면 喜하고, 肺에 并하면 悲하고, 肝에 并하면 憂하고 脾에 并하면 畏하고, 腎에 并하면 恐하니, 이를 일러 五并이라고 한다. (虛함에 서로 并하는 것입니다.) 五味所禁：辛(味)은 氣를 走하니, 氣病에는 辛(味)을 多食하지 말며；鹹은 血을 走하니, 血病에는 鹹을 多食하지 말며；苦는 胃를 走하니 胃病에는 苦를 多食하지 말며；甘은 肉을 走하니, 肉病에는 甘을 多食하지 말며 酸은 筋을 走하니, 筋病에는 酸을 多食하지 말며, 이를 일러 五禁이라고 한다. 五病所發：陰病은 骨에 發하고, 陽病은 血에 發하며, 陰病은 肉에 發하고, 陽病은 冬에 發하며, 陰病은 夏에 發하니, 이를 일러 五發이라고 한다.

「素問」 調經論篇 第六十二에 보면,

帝曰：人有精氣津液，四支九竅，五藏十六部，三百六十五節，乃生百病，百病之生，皆有虛實，今夫子乃言有餘有五，不足亦有五，何以生之乎？岐伯曰：皆生於五藏也。夫心藏神，肺藏氣，肝藏血，脾藏肉，腎藏志，而此成形，志意通，內連骨髓，而成身形五藏，五藏之道，皆出於經隧，以行血氣，血氣不和，百病乃變化而生，是故守經隧焉。

帝께서 가라사대,

“사람은 精氣津液과 四支九竅와 五藏十六부와 三百六十五節이 있어서 이에 百病을 生하고, 百病의 生함엔 모두 虛實이 있는(法인)데, 이제 夫子께서는 이에(겨우)(乃) 有餘함이 다섯 가지가 있고 不足함이 또한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어떻게(해서) 이를 生합니까?”

岐伯이 가로되,

“모두 五藏에서 生합니다. 대저 心은 神을 藏하고, 肺는 氣를 藏하고, 肝은 血을 藏하고, 脾는 肉을 藏하고, 腎은 志를 藏하여, (이에[이것들이] 形을 이룹니다.) 志意가 通하고 人으로 骨髓에 達하여서 身形 五藏을 이룹니다. 五藏의 道는 모두 經隧에서 出하여 써 血氣를 行하니, 血氣가 不和하면 百病이 이에 變化하여 生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經隧를 守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醫學에서의 음양오행의 應用은 五行의 生剋道理를 運用해서 人體內臟의 相互資生과 相互制約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또 五行의 歸類法을 가지고 人體의 각 부분의 사이와 나아가서는 人間과 外的環境과의 사이에 相互連絡하는 관계를 설명한다.⁵³⁾

b) 「성서」와 음양오행설

우주의 모든 사물을 陰陽에 배당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것이다. 예컨대 빛은 陽 어둠은 陰, 낮은 陽 밤은 陰, 남자는 陽 여자는 陰, 하늘은 陽 땅은 陰, 상은 陽

53) 강효신, p. 18.

下는 陰 등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이러한 것은 이미 聖書 속에 모두 나타나있는 사실들이다.

하나님이 빛(光)과 어둠(暗)을 나누사 빛을 낮(晝)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夜)이라 칭하시니라 저녁(晚)이 되며 아침(早)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1:5). 하나님이 궁창 아래(下)의 물과 궁창 위(上)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창 1:7)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徵兆: 記號)와 사시(四時: 定節)와 일자(日子)와 연한(年限: 年歲)이 이루어라.(창1:14)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日)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月)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星)들을 만드시고.(창1:16)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男)와 여자(女)를 창조하시고(창1:27)

하나님께서 天地 萬物을 창조하신 원리는 모든 것이 짝(伴)을 이루며, 또 調和와 均衡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다. 陰陽家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사물들의 모습(象)을 보고 그 이치의 한 부분을 깨달은 것뿐이다.

너희는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것이 하나도 그 짝(伴)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靈)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재비를 뽑으시며 친수(親手)로 줄을 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이사야34:16-17)

오행(五行)의 요소도 성서 안에서 언급되는 삼라만상과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 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들은 칠이요 산에서는 동을 쫓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신명기8:7-10)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火)을 지켜 그 도(道)를 행하며,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

계, 아름다운 땅(土)을 주시고, 시내와 분천과 샘(水)을 주시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木)를 주시고, 그 땅과 산에는 철과 동(金)을 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으므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聖書의 여러 곳에서도 이러한 '陰陽'과 '五行'의 요소들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만물의 구성요소와 연관된 주장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활발히 주장되었다. 그러나 동양사상에서의 이러한 陰陽이나 五行의 운용과 응용은 더욱 철학적인 깊이를 더했고, 인간 삶의 전 영역에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음양오행설의 주장과 같이 음양의 원리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행의 원리로 만물은 운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섭리)'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 원리를 더듬어 발견하고 표현함에 있어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한 사고와 이해도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음양오행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본질적 구성과 원리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c) 한의학과 음양오행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陰陽五行說이 처음으로 나타났을 무렵의 陰陽과 五行이란 宇宙에 대한 일반인식으로서 經驗을 통하여 산출된 것이었다. 醫術家は 먼저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온 의료의 실천경험을 지니고 있었으며, 春秋時代 말기(기원전 5세기 전반)에 이르러 처음으로 陰陽의 理論을 도입하여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戰國時代 후기(기원전 3세기 전반)에 와서야 겨우 그 무렵 새롭게 부흥한 陰陽五行說을 모두 받아들여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국시대의 인물로 여겨지는 추연(鄒衍)이 두 파(派)의 學說이 결합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이론체제로 새로이 발전시켜 의학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석하고, 한의학의 이론 체계를 구축했던 것이다.⁵⁴⁾

그러므로 「黃帝內經」의 음양오행설은 醫術家が 외래의 학설을 수용하여 의학적인 전문화와 고도의 운용방법을 첨가한 것으로서, 의술가 자신이 쌓아온 경험으로부터 직접 산출된 것은 아니다.⁵⁵⁾ 그리고 「黃帝內經」 중에는 자연발생적인 유물적(唯物

54) 용백건, pp 107-108.

的) 견해와 변증적(弁證的) 견해를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이들이 음양오행설과 관련이 없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⁵⁶⁾

그러므로 陰陽五行說은 古代의 素朴한 唯物觀이므로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自然界의 모든 사물에 대하여 완전한 해석을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생체 내의 精細한 構造研究에 대하여서도 완전한 答案을 구할 수는 없다. 비록 陰陽五行 이론에는 아직도 정리되어야 할 점이 없지 않으나,⁵⁷⁾ 그것은 수천 년간에 걸쳐 이룩된 素朴한 唯物觀이며 自然發生的 辨證法인 陰陽五行說에 의하여 實用的인 治療醫學으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 醫療規範은 오늘날에도 韓(漢)醫學의 臨床方法論이 되고 있다.⁵⁸⁾ 그러므로 陰陽五行論이 의학적 응용에 적용됨으로 그 당시로서는 큰 진보를 이루었지만, 한의학 전체가 처음부터 陰陽五行論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음양오행설이 한의학의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한 도구임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한의학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버리고, 한의학을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로서 사용하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의학의 陰陽五行論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새롭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11:33)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11:36)

E. 진단법(診斷法)과의 연관성

55) 용백건, p. 120.

56) *Ibid.*, p. 120.

57) 사실 陰陽五行說은 「黃帝內經」속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기타 다른 醫書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또한 道家의 음양의 응용과, 또는 각 시대의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점이 많다. 예를 들면, 「黃帝內經」素問의 金眞言論篇에는 인체의 背는 陽, 腹은 陰이라 했으나, 道家의 「老子」에서는 그 반대로 되어 있다. 음운(音韻)학파에서는 맑고 가벼운 소리는 陰, 탁하고 무거운 소리는 陽이라고 하지만, 醫術家에게는 그 반대로 되어있다. 五臟과 五行의 배당에서도 古代 醫書인 고문설(古文說)의 「陰陽治療法」과 금문설(今文說)의 「黃帝內經」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五運六氣說과 陰陽五行說과의 십간(十干)과 三陰三陽의 배당이 서로 다르다.

58) 강효신, p. 11.

a. 「황제내경」의 진단법(診斷法)

「황제내경」의 진단법의 대략적인 내용은 望·聞·問·切이다. 이 네 가지는 후대에 성립된 漢(韓)醫學 ‘診斷學’의 근원이다.

「素問」의 陰陽應象大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善診者，察色按脈，先別陰陽，審清濁，而知部分，聽音聲而知所苦：觀權衡規矩而知病所主：按尺寸，觀浮沈滑澀而知病所生，以治則無過，以診則不失矣。

진단(診斷)을 잘하는 의사는 색깔을 관찰하고 맥(脈)을 헤아려서 먼저 질병의 음양 속성(陰陽屬性)을 판별하고, 안색의 청탁(淸濁)을 살펴서 질병의 부위를 알아내고, 환자의 호흡과 숨소리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의 음성을 들어서 그가 고통받는 것을 알아내고, 사시(四時)의 맥상(脈象)의 변화를 진찰하여 어느 장기(臟器)나 경락(經絡)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고, 척부(尺部)와 촌구(寸口)를 더듬어 맥상의 부침활삼(浮沈滑澀)을 이해하여 질병의 발생부위를 알아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면 착오도 없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단하면 그릇될 것이 없다.

즉, 한의학의 診法은 望診·聞診·問診·切診의 四種의 診察方法을 의미한다. 醫師는 이 사진에 의하여 환자의 體徵·症狀 등을 관찰하고 여기서 얻은 자료를 종합하여 다시 八綱·五行·經絡 등의 이론에 의하여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얻게 된다.⁵⁹⁾

‘망진(望診)’은 시각을 이용하는 진찰법이다. 즉, 환자의 ‘神’(精神·神氣·神志 등 환자의 精神力)과, ‘色’(五臟과 氣血의 변화가 體表에 반영되는 표현 현상)과, ‘形’(환자의 形體를 의미)과 ‘態’(病의 重態를 의미)를 살펴서 질병의 性質, 부위와 轉移 등의 대체적인 정황을 알아내는 診斷法이다.

‘문진(聞診)’은 청각과 후각을 이용한 진찰법으로, 청각으로 환자의 言語·呼吸·咳嗽·嘔吐 등의 성음(聲音)을 듣고 병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며, 후각으로 환자의

59) 감효신, p. 103.

口臭痰涕大便小便 등에서 방출하는 냄새를 통해 병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포괄한다.

‘문진(問診)’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시초의 질병과 현재의 질병의 전변 상태(傳變狀態)를 물어보는 것(必審問期所如病, 與今之所方病)’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병력(病歷)을 수집하고 현재 질병의 임상 표현을 파악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절진(切診)’은 손으로 환자의 신체의 일정한 부위를 촉지하여 질병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절맥(切脈)’과 ‘절부(切膚)’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절맥(切脈)은 삼부구후편진법(三部九候遍診法), 인영촌구진법(人迎寸口診法)(현재의 촌관척삼부진맥법(寸關尺三部診脈法)), 진위기(診胃氣) 등으로 나뉜다. 이 진단법들의 적지 않은 것들이 현실적인 임상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까지 한의사들에게 널리 운용되고 있다. 절부(切膚)는 상지(上肢)의 척택(尺澤)에서 촌구(寸口)까지의 피부를 말한다. 이것은 맥(脈)을 잡아 질병을 진단해내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⁶⁰⁾ 「黃帝內經」은 이러한 한의학 診斷法의 기본 이론을 잘 기술하고 있다.

b. 성서와의 연관성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그들의 건강을 유지했을까? 아무런 원칙도 없이 아무 것을, 아무 때나, 아무 방법이나, 아무 곳에서나 먹고 마셨을까? 물론 그 동산은 아직 질병이 없는 온전한 곳이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하거나 무절제한 곳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음식(또는 藥)을 취하게 될까? 비단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인간에게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섭취하게될 때 다음의 단계를 거치게 하셨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

60) 홍원식 역, 「소문」, p. IX-X.

라.(창3:6).

첫째, 보는 것이다(望). 보아서 입맛이 땡기는 것이 자신에게 영양이 되는 것이며, 藥이 된다. 둘째, 들어보는 것이다(聞).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 대상을 통해서, 또는 第三者를 통해서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셋째, 물어보는 것이다(問). 만일 자신이 잘 모르면 잘 아는 자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넷째, 만져보는 것이다(切). 찌르고 쏘는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만져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먹어보는 것이다(食).

하나님은 이 원리를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인간에게 주셨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복된 것을 준비해 두셨지만, 치명적인 실패가 되는 것도 존재했기 때문이다(창 2:17). 그러므로 인간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들을 늘 바라보아야만 했다(望).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늘 감사해야 했다. 인간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늘 들어야 했다(聞).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즉시 물어보아야 했다(問). 그러나 인간은 愚問에 愚答을 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그리고 먹는 것(食)에 대한 바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던 것이다(창 2:17).

望·聞·問·切의 診斷法은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이처럼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같이 되는 智慧를 얻을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 인간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만큼 탐스러운 慾心’을 품게 됨으로 謬辨을 하게 되고 만 것이다. 그 결과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 ‘씩지 않을 것이 씹을 것’으로, ‘죽지 않을 것이 죽을 것’으로 변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土)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 라.(창3:16-17).

타락 이후 질병과 사망이 오게 된 이 세상에서 올바른 診斷은 쉽지 않게 되었다. 얼굴에 땀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해야만 바른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몸에 유익

한 식물(食物, 또는 藥物)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창3:19).

「黃帝內經」은 육체의 질병을 진단하고, 건강을 누리게 하는 좋은 方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原理 속에 있는 것이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판단의 눈(目)이 흐려진 세상에서, 「黃帝內經」의 진단법은 질병을 알고 치료하며,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永生의 길잡이가 되지는 못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 하리라.(요한 복음8:51).

F. 경락설(經絡說)과의 연관성

a. 「황제내경」의 경락학설(經絡學說)

경락설(經絡說)은 음양오행(陰陽五行)·장부(臟腑)·영위(營衛)·기혈(氣血) 등과 함께 한의학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생리(生理)·병리(病理)·진단(診斷)·치료(治療)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락(經絡)이란 경맥(經脈)과 락맥(絡脈)의 총칭이다. 경맥과 락맥은 인체 각부(各部)를 종횡(縱橫)으로 교차하여 연결망(連結網)으로 분포되었는데, 장부(臟腑)에서 피부(皮膚)·기육(肌肉)·근골(筋骨) 등 일절(一切)의 조직에 이르게 되며, 경락이 그를 관통해서 하나의 통일적 종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즉, 경락이란 기혈(氣血)이 운행(運行), 통과(通過), 연락(連絡) 하는 통로(通路)이며, 이들은 장부(臟腑) 주재(主宰)에 의지하여 전신(全身)에 분포(分布)되어 표리(表裏)와 상하(上下)를 서로 연락(連絡)한다. 그리고 경락(經絡)은 하나의 유기체(有機體)로서 각기의 소계통(所系統)을 조직(組織)하고 있다.⁶¹⁾

경락(經絡)의 작용(作用)은 인체(人體)의 정상적(正常的)인 생리활동(生理活動)을 진행시킨다. 그러므로 병변(病變)이 발생되면 경락(經絡)을 통하여 약간의 병리현상(病理現象)이 계통적으로 반영된다. 이 객관적인 병상에 의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경락(經絡)의 작용은 첫째, 기혈을 운행시키고

61) 강효신, p. 75.

신체를 자양하는 작용을 한다. 둘째, 인체의 이상(異常)을 반영하는 작용을 한다. 셋째, 침습병사(侵襲病邪) 등을 전도(傳導)하는 작용을 한다.⁶²⁾

이러한 경락에는 십이경맥(十二經脈)과 기경팔맥(奇經八脈)이 있고, 십이경맥(十二經脈)에 관련하여 십오별락(十五別絡)이 있고 별도(別途)로 주행(走行)하는 십이경별(十二經別)이 있고 십이경근(十二經筋)이 있다. 그리고 365락(絡)과 무수(無數)한 손락(孫絡)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이경맥(十二經脈)이며, 일반적으로 경락이라고 하면 이것을 가리킨다. 십이경맥은 모든 경락(經絡)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십이정경(十二正經)이라고도 한다.⁶³⁾

十二經脈의名稱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一定한 順序로 循行한다. ①手太陰肺經(金), ②手陽明大腸經(金), ③足陽明胃經(土), ④足太陰脾經(土), ⑤手少陰心經(君火), ⑥手太陽少陽經(君火), ⑦足太陽膀胱經(水), ⑧足少陰腎經(水), ⑨手厥陰心包經(相火), ⑩手少陽三焦經(相火), ⑪足少陽膽經(木), ⑫足厥陰肝經(木). 그리고 十二經脈은 번호 順에 따라 手의 太陰肺經으로부터 始作하여 足의 厥陰肝經에까지의 順序로 계속 循環走行한다.⁶⁴⁾

「靈樞」經脈 第十에서 보면,

肺手太陰之脈，起於中焦，不絡大腸，還循胃口，上膈屬肺，從肺系橫出腋下，下循內，行少陰心主之前，下中，循膈內上臂下廉，入寸口，上魚，循魚際，出大指之端，其支者，從腕後直出次指內廉，出其端

肺의 手太陰의 脈은 中焦에서 起하여 아래로 大腸에 絡하고 還하여 胃口를 循하여 膈을 上하여 肺에 屬하고 肺系를 좃아서 腋下로 橫出하여, 아래로 (上臂膈에서 까지)의 안쪽을 따라(循) (手)少陰(經)과 心主(手厥陰心包)의 前으로 行하여 가운데로 下하고 膈內(側)上臂의 下廉을 循하여 寸九로 入하고, 魚(手大指本節後 掌側肌肉隆起處)로 上하여 魚際를 循하여 大指의 端으로 出하며 그 支는 腕의 뒤로 次指의 內廉으로 直出하여 그 端으로 出합니다.

62) 김현제 외, 「最新鍼灸學」(서울: 成輔社, 1991), p. 11-16.

63) Ibid., pp. 2-3.

64) 강효신, p. 79.

「靈樞」脈度 第十七 第二章을 보면,

五藏常內關於上七竅也。故肺氣通於鼻，肺和則鼻能知臭香矣

五藏은 항상 上의 七竅를 內에서 關합니다(七竅에서 內關됩니다). 그러므로 肺氣는 鼻에 通하니 肺가 和하면 鼻가 能히 臭香을 知합니다.

「靈樞」刺眞邪 第七十五 第四章을 보면,

黃帝曰：余聞氣者，有眞氣，有正氣，有邪氣，何謂眞氣？

岐伯曰：眞氣者，所受於天，與穀氣 并而充身也。正氣者，正風也。從一方來，非實風，又非虛風也。邪氣者，虛風也賊傷人也。其中仁也深，不能自去。正風者，其中人也淺，合而自去。其氣來 柔弱，不能勝眞氣，故自去。

黃帝께서 가라사대, “余가 듣건대, 氣에는 眞氣가 있고, 正氣가 있고, 邪氣가 있다 하는데 무엇을 眞氣라고 이릅니까?”

岐伯이 가로되, “眞氣란 天에서 受한 바가 穀氣와 더불어 并하여 身을 充하는 것인나 다. 正氣((正常的 氣候))는 正風이니 一方으로부터 來하며, 實風이 아니고 또 虛風 도 아닙니다. 邪氣는 虛風의 人을 賊傷하는(것인)데, 그(것이) 人에 中함이 深하여 스스로 去하지 아니합니다. 正風은 그 人을 中함이 天하여 合함에 스스로 去하니, 그 氣의 來함이 柔弱하여 能히 眞氣를 勝하지 못하므로 스스로 去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黃帝內經』을 살펴보게 되면, 元氣가 經絡을 따라 인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없이 循環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氣의 흐름은 手太陰肺經 부터 시작되어 足厥陰肝經까지, 그리고 또다시 手太陰肺經으로 돌아오는 循環走行을 계속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첫 시작되는 肺經의 經脈의 시작은 中焦의 胃口에서 비롯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肺氣가 外部와 통하는 入口(竅)로는 코(鼻)임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인간 생명의 첫 원동력이 되는 眞氣는 하늘(天)로부터 오는 氣와 脾胃를 통해서 소화흡수되는 (水)穀氣와 더불어 신체에 충만해 있다고 한다.⁶⁵⁾

b. 성서와의 연관성

「黃帝內經」의 이상과 같은 경락(經絡)의 기술에 대해, 聖書의 기록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耶和華上帝用地上的塵土造人,將生氣吹在也鼻孔裏也就成了有靈的活人,名叫亞當(創世記2:7)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生氣를 그 코(鼻)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生靈이 된지라.(창2:7).

「黃帝內經」에서 기술하고 있는 원초적으로 하늘(天)로부터 온 氣는 사실 하늘의 하나님(上帝)께서 주신 '生氣'이고, 그 生氣를 폐경의 입구(竅)인 코(鼻)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이 되는 흙(塵土)의 장기인 脾胃가 자리한 中焦의 胃口에 불어넣어 점화(點火: fire)시켜 穀氣와 더불어 진기(眞氣)가 되어 流周循行하여 모든 經絡을 열게 되어, 온 몸에 충만하게 되니, 첫 숨을 쉬게 되고, 드디어 生靈인 '산 사람'이 된 것이다. 더욱이 '生氣'의 출처를 「黃帝內經」은 뚜렷이 밝히지 못하고 그저 '하늘(天)'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에 반해, 聖書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上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生氣'는 하나님 '자신의 靈'을 불어넣으셨음을 의미한다(욥33:4;32:8).⁶⁵⁾

이로 보건대 「黃帝內經」의 처음 記述者들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 받았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식들을 근본으로 삼았음이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黃帝內經」은 하나님(上帝)으로부터 온 복된 선물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들의 조상들도 중국대륙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된 '뻘이징 猿人'의 후예들이 아니라, 노아의 대홍수 이후 바벨에서 온 세계로 그 語族에 따라 이산되어 東進해 온 노아의 후예들이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의 근본적 속성이 변하여, 그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65) 張氏類經에 보면 "眞氣는 元氣다. 天에 있는 氣를 鼻로 吸入하여 喉가 管轄(管轄)한다. 水穀에 있는 氣는 口로 入하여 咽이 管轄(管轄)한다. 아직 出生하기 前에 있는 것을 先天의 氣라 하고, 生後의 것을 後天의 氣라한다."라고 했다. (강효신, pp. 66- 67.참조)

66)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권수경·이상원 역(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p. 403.

때문에(창8:21), 세월이 흐르면서 이 '진해진(眞理)'은 왜곡되고 흐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둡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 '거짓된 인간의 지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써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욱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롬1:18-25).

G. 해부학(解剖學)과의 연관성

a 「黃帝內經」과 解剖學

한의학은 非科學的이고 단'순히 東洋哲學的인 思念의 醫學으로 오해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의학에 解剖學이나 外科的 지식, 外科的 치료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의학이 다분히 그러한 面貌를 지녀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의학의 最古의 原典인 「黃帝內經」에서는 이미 해부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記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靈樞」의 經水 第十二 第二章을 보면, 다음과 같이 라고 기록되어 있다.

且夫人生於天地之間，六合之內，此天之高，地之廣也。非人力之所能度量而至府之大小，穀之多少，脈之長短，血之消瀉，氣之多少，十二經之多血少氣，與其少血氣，與其皆多血氣，與其皆少血氣，皆有大概。

무릇 사람은 천지(天地)의 間과 육합(六合)의 內에서 生하는데, 이 天의 高와 地의

廣은 人力이 능히 도량(度量)하여 지(至)할 바가 아니거니와, 무릇 팔척(八尺)의 사(士)는 피육(皮肉)이 여기에 있으니 外로는 可히 도량(度量) 절순(切循)하여 이를 얻을 수 있고, 그가 死함에 해부(解剖)하여 이를 시(視)할 수 있으니, 그 장(藏)의 견취(堅脆)와 부(府)의 大小와 곡(穀)의 多少와 맥(脈)의 장단(長短)과 血의 청탁(淸濁)과 氣의 多少와 十二經의 다혈소기(多血少氣)와 그 소혈다기(少血多氣)와 그 개다혈기(皆多血氣)가 모두 많은 경우 즉, 다혈다기(多血多氣)와 그 개소혈기(皆少血氣)가 모두 대수(大數)가 있습니다.

「靈樞」의 平人絕穀 第三十二, 第二章에 보면,

小腸大二寸半, 徑八分分之少半, 長三丈二尺, 受穀二斗四升, 水六升三合合之大半, 迴腸大四寸, 徑一寸寸之少半, 長二丈二尺, 受穀一斗, 水七升半, 廣腸大八寸, 徑二寸寸之大半, 長二尺八寸, 受穀九升三合八分合之一.

소장(小腸)은 大가 二寸半이고, 徑(徑)이 八分과 分의 少한 半이고, 長(長)이 삼장 이척(三丈二尺)이며, 곡(穀)이 두사승(二斗四升)과 수(水) 육승삼합(六升三合)과 合의 大 한 半을 受합니다. 회장(迴腸)은 大가 四寸이고, 徑이 一寸과 寸의 少한 半이고, 長(長)이 二丈一尺이며, 곡(穀) 一斗와 水七升半을 受합니다. 광장(廣腸)은 大가 八寸이고 徑(徑)이 二寸과 寸의 大한 半이고 長(長)이 二尺八寸이며, 곡(穀) 九升三合과 八分의 一合을 受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人體의 구조에 관한 度量을 外部에서도 측정할 수 있으며, 또한 죽은 자를 解剖하여 그 모양과 크기와 길이와 부피 등을 알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黃帝內經」은 人體 각 장기의 解剖·生理·病理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미 현재로부터 2천여 년 전, 편작과 화타 시대에 마취에 의한 開腹手術과 뇌수술 등을 한 예가 전해지고 있으며, 2천여 년 전의 戰國時代부터 빈번한 전쟁으로 인한 外傷 등에 대한 外科的 처치술이 발달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道敎와 儒敎의 사상이 동양문화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따라서 조상 숭배 사상이 자리잡게 됨에 따라 부모님께서 주신 육신을 손상시키며 해부하는 행위는 파렴치한 불효로 엄격히 금지했으며, 佛敎의 輪回 思想, 大慈大悲 사상 등의 殺生 금

지에 대한 개념들이 동양적 사고를 이루어가게 됨에 따라, 인체에 변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禁忌가 깊이 뿌리내렸다. 그러므로 가축이라도 칼을 대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멸시했으며, 의사 중에도 외과의사를 가장 輕히 여겼다. 이러한 사회 관습과 종교의 영향 등으로 해부학은 발달할 수 없게 되었고, 외과적 치료법은 전수되지 못한 채 사장되어졌다.

그러나 「黃帝內經」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원래 한의학 자체가 解剖學的 연구를 소홀히 하거나 外科的 치료법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분히 동양적 사고 체계를 이룬 儒敎와 佛敎 등의 영향과 사회 관습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영향이 근대까지 내려 온 것이다.

b. 基督教과 解剖學

서양의학을 두고 볼 때도 인간의 사체(死體)해부는 중세 기독교에 의해서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13세기 초 법왕(法王)에 의해서 검사(檢死)에 한해 허가되었고, 15세기 후반에는 공인되었다. Carulu 5세가 사체해부(死體解剖)가 과연 罪가 많은 것인가를 물었을 때 스페인의 Salamanamanca대학 신학부의 교수단은 “인간의 사체해부가 유일한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고, 가톨릭 교회의 신자로서 허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⁶⁷⁾ 따라서 이탈리아 각지에서 의과대학이 생기면서 해부학의 연구가 장려되었다. 더욱이 유럽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그 영향이 의학상 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16세기였다. 특별히 의학의 대혁신은 벨기에 출신의 위대한 의학자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 1514-64 A.D.)로부터였다.⁶⁸⁾ 그는 뛰어난 해부학자로서 그의 해부는 알렉산드리아의 인간 사체해부(死體解剖) 지식에 동물 해부에 의한 지식을 成化하여 인체의 구조에 관한 대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로 서양 의학은 해부·조직학의 활발한 연구를 기초하여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⁶⁹⁾

서양 의학의 발전은 이렇듯 기독교의 의학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 속에서 이

67) 백영한, 「醫學史概論」(서울 : 꽃丑文化社), p. 47.

68) Ibid., p. 53.

69) Ibid., p. 57.

특된 것이었다.

c. 평가

한의학 자체가 해부학이나 수술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행하지 않았거나 이들을 소홀히 한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黃帝內經」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오히려 「黃帝內經」은 서양의학 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었다. 한의학이나 서양의학 모두가 종교·사상·사회 관습에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해부학과 외과적 연구는 더욱 그러했다. 우리 나라는 한의사를 양반도 상민도 아닌 중인(中人)의 계층에 있게 했고, 특히 외과의(外科醫)는 최하로 여겼다. 서양에서도 중세의 10세기까지는 공인된 의학교나 의사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십자군의 원정 이후 수도원을 중심으로 의학교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해부학 강의는 있었지만 교수들이 스스로 집도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특히 사체(死體) 해부(解剖)는 직인(職人) 계급에 속하는 이발외과인(理髮外科人)에게 맡겨져 경히 여겼다.⁷⁰⁾

한의학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동양 사회의 종교·문화·풍습의 영향을 받아 그 시대적으로 성행했던 사유체계와 깊은 관련을 가져 왔었다.⁷¹⁾ 그러므로 한의학은 醫家들에 의해 그 독자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시대 사상의 제한적 허용 속에서 그 학문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한의학이 도교나 유교, 그리고 불교의 영향으로 기초를 이루게 되고 또 한 발전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종교들이 한의학의 해부학 연구와 발전에 결정적 제약과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양의학은 16세기 이후,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의 영향 아래, 기독교의 적극적인 장려 속에서 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한의학도 원래 그 자체가 해부학이나 외과학을 다루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학문은 아님을 알고, 그 학문적 이론과 바탕 위에 이들도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기독교가 15세기 이후로 인류의 질병을 퇴치하는 유익한 목적으로 기여한다면 해부학을 허용하고 장려할 수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후

70) Ibid, pp. 46-47.

71) 박재환, "한의학, 하나님이 주신 선물", p. 29.

의과학이 눈부신 발달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기독교는 오늘날 한의학의 발달을 위해 지난날의 잘못된 굴레들을 끊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 안에서 한의학을 거듭나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결론

지금까지의 글을 통해 필자는 한의학이 과연 전근대적(前近代的)인 '고루(固壘)한 의학'이며, 실험·분석·증명하기 힘든 '비과학적(非科學的) 의학'이요, 특히 道敎나 儒敎 또는 佛敎에 가까운 哲學的 思念에 속한 '도사(道士)들의 의학'이며, 반 기독교적(反基督敎的)인 '불신앙(不信仰)의 의학'인가? 아니면 한의학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한의학 이론의 最古, 完備된 原典으로 일컬어지는 「黃帝內經」을 살펴 보았다. 왜냐하면 한의학의 모든 시작이 이 「黃帝內經」으로부터 시작되고, 「黃帝內經」으로 마감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醫書를 聖書와 더불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 「黃帝內經」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한의학의 근본적 기초 이론을 이루는 모든 주장들이 聖書의 기록과 대립되기보다는 도리어 성서를 통한 해석으로 보다 완성되어짐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결코 「黃帝內經」과 聖書가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黃帝內經」의 원리가 '眞理'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단지, 오늘날 일반 한의학자나 동양사상가들에게서 보듯이 「黃帝內經」이 천지만물의 구성과 운행의 이치와 인간의 건강을 영위하기 위한 참된 규범을 담은 불변의 '眞理의 經典'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나, 이와 반대로 비과학적이요, '불신앙적인 의학 교과서'로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黃帝內經」에 대한 성서적인 고찰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즉, 지고한 진리의 잣대인 聖書의 조명 하에 나타난 「黃帝內經」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이었다. 그 긍정적인 면모는 「黃帝內經」, 즉, 한의학의 기초 이론의 근거가 모두 성서적 기록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성서가 가르쳐 주는데, 이 원리를 깨우친 자들이 바로 '노아의 흠어진 후손들'인 여호와를 숭배하던 그 조상들로서, '전해진 진리'와, 하나

남께서 주신 '일반 은총'으로써 '자연 환경 속에서 생활의 지혜로 얻어진 경험의술(經驗醫術)'을 기록했기 때문인 것이다(행17:24:31).

그리고 그 부정적인 면모로는 「黃帝內經」은 聖書와 같이 완전한 '眞理의 經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黃帝內經」에 나타난 한의학 기초이론의 근거가 모두 성서의 기록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많이 변형되고 왜곡되고 때로는 모호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며, 더욱이 인간의 궁극적인 전인치유의 '구원의 메시지'는 결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黃帝內經」은 하나님의 '일반은총' 속에서, 병들고 상처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인간의 악함에서 기인한 오류와 왜곡과 욕심들이 또한 자리하고 있음을 알고, 이 '선물'을 善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말해 보자면, 한의학의 기초 이론인 '음양오행설'도 한의학에 처음부터 적용되어 이 바탕 위에 「黃帝內經」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 사조에 따라 인간들의 의도적인 목적을 담고 의학의 활용성과 의학상의 여러 문제를 해석 하는데 편리함을 위해서 산발적으로 연구되고 있던 이론들(음양학, 오행학 등)을 체계화하여 의학에 적용하여 의학적인 전문화와 운용 체계를 이루었던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그것은 곧, '음양오행설'이 한의학의 본질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학을 위한 도구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黃帝內經」에 대한 성서적 고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黃帝內經」 곧, 한의학을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노력이야말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한의학'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게 하는 복된 일일 것이다.

「黃帝內經」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의학을 '불신앙의 의학'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한의학은 오늘날의 서양의학 보다도 더욱 더 하나님의 치유의 원리를 고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학'이다. 이제 더 이상 한의학을 하면서 '신앙적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학문 속에 스며들어 있는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종교적 요소들과 인간의 욕심과 완악함 속에서 생겨난 편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 학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한의학이 담고 있는 '인간을 치유함에 유의한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바로 해석하고 운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韓(漢)醫學의 學問的 거듭남'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학자들과 醫療人들이 성령의 인도하시고 조명하시는 길(道)을 따라 마땅히 이루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7-19)